

서신서들의 초점—신성한 분배를 위한 신성한 삼일성

성경: 롬 8:9, 11, 고전 12:4-6, 고후 13:14, 갈 4:4-6, 엡 2:18, 살후 2:13-14,
딤후 3:4-6, 뵤전 1:2 유 20-21

I. 신성한 삼일성이 서신서들의 초점이다—롬 8:9, 11, 고전 12:4-6, 고후 13:14, 갈 4:4-6, 엡 2:18, 살후 2:13-14, 딤후 3:4-6, 유 20-21.

- A.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그리스도는 정해진 때가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롬 5:5-6.
1.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영은 우리에게 주어지셨으며, 이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롬 5:5-6.
 2. 이제 우리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인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의 기초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
- B.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롬 8:9.
1.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내 주하시는 생명의 영(롬 8:2)께서 삼일 하나님 전체를 포함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심을 가리킨다.
 2. 하나님과 그 영과 그리스도, 곧 신격의 셋 모두가 이 절에 언급된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오직 한 분, 곧 삼일 하나님의 삼일의 영만이 계신다—요 4:24, 고후 3:17, 롬 8:11.
 - a. ‘하나님의 영’은 그 영께서 영원 과거부터 계셨고,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만물의 기원이신 분께 속하신다는 것을 함축한다.
 - b. ‘그리스도의 영’은 그 영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하신, 육체가 되신 분이신 그리스도의 체현과 실재이심을 함축한다—롬 8:3.
 3.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와 영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그분들의 거처를 정하고 계신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놀라우신 삼일 거주자가 계신다—롬 8:11, 비교 엡 3:16-17.
- C.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롬 8:11.
1. 이 절에는 삼일 하나님 전체, 곧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이 있다.
 2. 이 절에는 또한 신성한 분배, 곧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는 것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 있다.
 - a. 이 과정은 (육체 되심을 강조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와 (부활을 강조하는) ‘살리신’이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다.
 - b. 신성한 분배는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라는 말에 나타나 있다.
- D. “이 은혜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자, 곧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롬 15:16.

1.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한,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자였고, 제사장으로서 삼일 하나님의 복음을 공급하였는데, 이것은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2. 바울은 삼일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었고,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공급하였다. 결국 그의 일의 결과는 이방인들을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된 한 실체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다.

II. 신약에서 신성한 삼일성에 관해 언급된 모든 것은 신성한 분배와 관련된다—벧전 1:2, 살후 2:13-14.

- A.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신성한 삼일성에 대한 계시는 단순히 교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삼일 하나님을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여, 그들이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며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후 13:14.
- B. 에베소서의 중대한 초점은 믿는 이들 안으로의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이다.
 1. 1장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지체들을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며, 영 하나님께서 보증으로서 그들에게 도장 찍으심으로써, 그분 자신을 믿는 이들 안으로 나누어 주시어, 그리스도의 몸, 곧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인 교회를 형성하셨는지를 밝혀 준다—엡 1:3-14, 17-23.
 2. 2장은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모든 믿는 이, 곧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영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엡 2:18.
 3. 3장에서 사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 하나님을 통해 믿는 이들을 강하게 하셔서 그들의 속사람에 이르게 하심으로써,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어,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한다—엡 3:16-19.
 4. 4장은 어떻게 그 영과 주님과 아버지이신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심으로 몸의 모든 지체들이 신성한 삼일성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지를 묘사한다—엡 4:4-6.
 5. 5장은 믿는 이들에게 영 하나님의 노래들로 아들 하나님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아들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권한다—엡 5:19-20.
 6. 6장은 아들 하나님이신 주님 안에서 굳세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며, 그 영의 검을 사용함으로써 영적인 전쟁을 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한다—엡 6:10-11, 17.
- C.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정상적이고 점진적이고 꾸준한 방식으로 신성한 분배를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누리야 한다—롬 8:11, 고후 13:14.
 1. 신성한 분배를 체험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생명이 더욱 더 자란다—엡 3:16-19, 4:15-16.
 2.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은 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일상적인 방식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롬 8:9, 11.
 - a. 우리는 신성한 분배 안에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생활해야 하고, 신성한 분배 안에서 일상적인 날들에 만족하기를 배워야 한다.
 - b. 우리의 운명은 신성한 분배 안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다. 신성한 분배 안에서 일상적인 날들에 만족하는 것은 축복이다.